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지원사업 수행실태 분석연구

이명숙, 김현리, 김명순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남대학교, 경기전문대학교

산업재해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93년부터 시작된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은 해마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주관 부서도 노동부에서 산업안전공단으로 바뀌어 예산 규모 및 대상사업장수도 대폭 확대하여 왔다. 특히 '97년도 부터는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사업으로 통합 흡수되어 '99년까지 실시될 예정으로 대상사업장도 사업주가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사업장관리 모니터요원을 선정하고, 담당인력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시도를 하였다.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에서는 연2회 실비지급하는 작업환경측정, 연2회 전액비용지급하는 특수건강진단, 매월 1회 실시되는 보건지도 등이 있는데, 보건지도는 산업의학분야, 산업위생분야, 산업간호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장별 전담제와 실명제를 신설하여, 대상 사업장 100개소당 산업위생분야 및 산업간호분야 각 1인 이상, 200개소당 산업의학분야 1인 이상 전담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같은 시도들은 다양한 작업조건 및 유해작업환경과 산업재해율과 직업병 유소견율이 높은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단순한 지원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업보건관리체계를 개발하는데 유용한 것이라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97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내용 중 보건관리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제시된 각종 기록서식 내용 분석을 통하여 분야별 담당인력의 업무 수행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기본종류 분석
2. 업무시간 분석
3. 산업간호사 보건지도내용 분석
4. 업무의 기본종류를 보건관리의 계획·수행·평가의 틀로 분석